

결과를 비교한 결과, 비부비동에서 발생한 선양낭포암이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유의하게 국소재발의 발생이 적었다($p=0.02$). 하지만 원격전이율 및 생존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부비동을 제외한 다른 소타액선군 및 주타액선군에서는 국소재발율, 원격전이율, 생존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 비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선양낭포암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원격전이가 적게 발생하고, 수술과 방사선 병용요법을 시행하면 국소재발이 적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비록 이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지만,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14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

정응윤* · 장항석 · 양우익** · 박정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배경 : 최근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의 임상적 특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기원의 악성림프종과의 발생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목적 :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에 대한 임상 및 병리학적 특징을 알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방법을 찾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2년부터 1999년 9월까지 경험한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 17예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결과를 알아보고 Ann Arbor Criteria에 따른 병기와 NCI working formulation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았으며, MALT기원의 악성림프종의 특징 및 하시모토 갑상선염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 평균 연령은 56.8세(25~77세)이었으며, 남녀비는 2 : 15 이었다. 1년 내에 급격히 성장하는 무통성 종괴가 14예로 가장 많았고, 13예에서는 수술후 검체를 통해, 3예는 세침흡인생검으로, 1예는 절개생검으로 진단되었다. 병기는 I기가 6예, II기가 11예이었고, 모두 B cell 기원의 non-Hodgkin's lymphoma이었으며, MALT 기원의 림프종이 9예(53.3%)에서 확인되었다. Non-MALT 림프종 8예 중 7예가 diffuse large cell type, 1예가 diffuse mixed type이었고, MALT 림프종 9예 중 6예는 low-gr-

ade, 3예는 high-grade와 low-grade의 혼합형이었다. Non-MALT 림프종은 모두 II기이었고, MALT 림프종 9예 중 6예가 I기에 해당되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존재는 MALT 기원의 림프종은 9예를 포함한 10예에서 확인되었다. 치료가 시행된 15예 중 완전 관해를 보인 12예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은 없었으며, 단지 2예가 불완전 관해를 보여 각각 치료후 2개월, 16개월에 사망하였으며, 1예는 현재 치료 중이다.

결론 : 갑상선의 원발성 악성림프종은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효과가 양호하였으며, 특히 MALT 기원 림프종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발생적 연관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의 개발과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의 세심한 경과관찰 및 세침흡인생검 혹은 절개생검등으로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5

수술중 근전도를 이용한 승모근의 신경 분포에 관한 연구

송병철* · 나선규 · 노영수 · 임현준 · 박동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재활의학과학교실**

배경 : 두경부암종의 수술적 치료시 원발병소의 제거와 함께 시행되는 경부 청소술의 합병증 중 척수 부신경의 손상에 따른 견갑장애는 환자의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다. 따라서 이의 방지를 위해 척수 부신경을 보존하는 변형적 경부 청소술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척수 부신경뿐만 아니라 경신경총도 승모근의 운동을 지배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목적 : 본 연구는 술 중 근전도를 시행해 척수부신경뿐만 아니라 경신경총의 승모근에 대한 신경분포에 대해 연구하고 신경분포의 일관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7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암으로 경부청소술을 시행받은 환자 24례를 대상으로 28부위에서 시행하였으며 bilateral ND이 4례, unilateral ND이 20례이었고, type별로는 경부곽청소술이 8부위, 변형적경부청소술이 20례이었다. 신경은 수술 중 완전노출로 확인하였고 승모근 지배여부는 술중 근전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 검사를 시행한 28례 모두에서 척수부신경이 승

모근 세부부에서 활동전위가 관찰되었으며, C3는 23례에서 박리가 가능하였으며, 상부에서 16례(69.5%), 중부 18례(78.2%), 하부 18례(78.2%)에서 활동전위가 관찰되었다. C4는 26례에서 시행하였으며, 상부에서 18례(69.2%), 중부 20례(76.9%), 하부 16례(61.5%)에서 활동전위가 관찰되었다.

결론: 척수부신경은 승모근의 모든 부위에서 일관성 있는 신경지배가 관찰되었다. 경신경총 특히 C3, C4도 또한 대부분의 승모근에 신경분포를 하였다. 수술시 좀더 신경 보존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환자의 견갑 기능 장애를 최소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환자의 추적관찰에 의한 환자의 견갑기능의 평가를 통해 경신경총 보존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6

후두암에서의 예방적 경부청소술의 임상적 고찰

김민식 · 임한승* · 선동일 · 조광재
유우정 · 김형태 · 조승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두경부 암에서 임상적으로 N0인 경우 경부에 대한 치료방법에는 논란이 많으나, 예방적 경부청소술은 통상적으로 조직학적 병기의 결정이 가능하고 수술 후 N(+)가 나왔을 때에는 치료적인 효과도 있어 다른 치료법보다 좋다는 보고도 많다.

목적: 이에 저자들은 후두암을 수술적으로 치료한 증례에서 예방적 경부청소술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저자들은 1993년부터 1999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받은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잠복전이의 확률과 예방적 경부광청술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평균연령은 61.7세로 남자가 40명(93.0%), 여자가 3명이었고, 성문암이 16례, 성문상부암이 22례, 경성문암이 5례였다. TNM병기에 따른 T병기의 분류는 T1b이 1례, T2가 10례, T3가 22례, T4가 10례였다. 총 71개의 경부청소술이 사용되었는데 이중 예방적 경부청소술은 56개(78.9%)였고 ext.SOHND를 시행한 1례를 제외하면 모두 측부 경부광청술을 시행하였다. 잠복전이율은 성문암 2례(12.5%), 성문상부암 6례(27.3%), 경성문암 2례(40.0%)

로서 전체 후두암의 23.3%였다. 잠복전이가 있던 성문암이나 성문상부암은 거의 대부분 T3였고 경성문암은 T2였다. 재발한 경우는 10례(23.3%)로 폐전이 3례, 원발부위 재발 2례, 경부 재발 7례였는데, 경부 재발 7례중 5례가 성문상부암이었고 성문암과 경성문암이 각각 1례였다. 치료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던 부위에서 재발한 예는 4례였고 예방적 경부광청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3례였는데 성문상부암이 2례이고 T3인 성문암이 1례였다.

결론: 후두암에서 N0 경부에 대한 치료는 추적관찰후 구제술, 방사선 치료, 경부청소술 등이 있으나, 특히 성문상부암, 경성문암이나 진행된 성문암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경부광청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이하선절제술시 Modified Facelift 절개의 유용성

임영창* · 김동영 · 최은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이하선절제술시 널리 사용되는 modified Blair 절개는 경부에 흉터가 남아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흉터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으며 이 중 이개후방의 모발선 안으로 피부 절개선을 숨김으로써 미용적인 단점을 보완한 modified facelift 절개방법이 소개되었다.

목적: 저자들은 modified facelift 절개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이하선절제술을 시행하여 modified facelift 절개의 유용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modified facelift 절개를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1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으며, 이 중 남자는 5례, 여자는 10례였다. 입원 및 수술 기록, 병리 검사 결과, 그리고 외래 의무기록으로 종양의 종류, 수술범위, 술후 합병증 및 수술의 적응증과 미용적인 면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Modified facelift 절개를 이용한 이하선절제술을 시행한 예는 양성 종양이 11례, 악성 종양이 3례였고, 만성 이하선염이 1례였다. 만성 이하선염 1례를 포함한 악성 종양 2례에서 이하선 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예에서는 이하선 천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악성 종양 2례에서 안면신경을 같이 절제하였으며, 이 중 한 예는 대이개신경을 이용하여 신경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시야의 제한은